

가로 시설 표준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도시들

부산시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지원팀
2025.2.4.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2025.2.19.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부산시가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디자인이 적용되는 공공시설물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3종이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확장과 변형이 용이한 모듈형 구조로 개발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이름에 LED 조명 적용으로 시인성을 높였다. 색상은 시 로고 타입인 회색으로 설정해 주변 경관에 따라 5단계까지 적용 가능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비상벨, 음성안내, 점자, QR코드)해 교통약자를 배려하였다.

맨홀 덮개는 시 도시브랜드 로고를 양각으로 디자인하고, 재료의 강도를 고려해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하였다. 콘크리트(보도용) 맨홀 덮개는 보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조화로운 가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안내표지판은 부산 도시경관 색채와 도시브랜드 색채를 적용하고, 글자 자체를 로고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간 정보에 대한 인지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신규 디자인 개발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올해부터 연차별 교체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운영 중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대부분은 2009년 설치되어 변색 등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운영자 불편도 커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발표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내부 공간에 있어 운영자 인권을 고려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내부 활동폭의 한계 ▲경관 차폐 ▲상품 공간 부족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시 공공시설물에 사용하던 '기와진회색'이 아닌 '밝은 기와진회색'을 사용하여 밝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시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설물 교체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한다. 또한 본격적인 교체에 앞서 새로운 디자인 실물 견본을 서울시청 주변에 설치하고 시민, 전문가 및 운영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점을 최종 디자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 설치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전·후면

출처: 서울시. (2025). 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16년 만에 새 옷 입는다... 연차별 교체 추진.
2월 19일 보도자료.